

##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 본전과 천장화

본전은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의 중심적인 건물이자 가장 신성한 장소입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와 함께 마쓰다이라 가문의 시조인 마쓰다이라 지카우지(1394년 사망 추정)가 모셔져 있습니다. 본전은 1931년에 세워진 곤겐즈쿠리 양식 건물로 에도 시대(1603~1867)의 지배 계급이었던 무사들이 선호했던 신사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배전, 제문전, 본전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배전만 일반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배전의 격자 천장에는 도요타시에 거주하는 옻칠공예가, 안도 노리요시(1947년생)가 2년에 걸쳐 그린 108 장의 화초 그림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5년에 행해진 도쿠가와 이에야스 400년제 메모리얼 사업의 일환입니다.

108 장의 그림은 삼나무에 둑글게 그려져 있고, 투명한 옻칠만을 사용해 나뭇결이 잘 드러나 보입니다. 그림의 둑근 가장자리와 천장의 격자에는 검은 옻칠이 사용되었습니다. 흰 매화, 붉은 매화, 대나무, 국화 등의 식물이 그려져 있는데, 사계절을 표현하는 4곳에 이 그림들이 각각 배치되어 있습니다. 동쪽 끝 중앙에는 일출이, 서쪽 끝에는 보름달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 모서리에는 마쓰다이라와 도쿠가와 가문 문장의 모티브가 된 후타바아오이(*Asarum caulescens*, 쥐방울덩굴과의 다년초)가 그려져 있습니다. 가문 문장에는 잎이 두 개인 후타바아오이의 신화 속 모습인 세 잎을 가진 ‘미쓰바아오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실제 후타바아오이가 본전 밖에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